

추천서

저는 최한준 연구원을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처음 만나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기까지 약 4년에 걸쳐 지도해 온 지도교수 고상기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학생의 연구 활동과 인성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최한준 연구원은 학문적 성실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춘 인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꾸준한 연구 성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한준 연구원은 석사과정 동안 매 학기 최소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국내 학술대회에 투고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단순히 결과물의 수준이 높았다는 점뿐 아니라 매 학기 뚜렷한 연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온 계획성과 성실성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연구실 내부 주간 세미나에서 자신의 실험 설계와 코드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았고, 동료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 실험을 고도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두드러지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회인 KDD에 제2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는 단순한 공동저자 참여가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 실험 파이프라인 구축, 결과 해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 실질적 기여의 결과였습니다. 나아가 석사과정 말기에 착수했던 연구를 취업 후에도 스스로 이어가며 인공지능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인 ECML-PKDD에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회사업무와 연구 병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연구를 끝까지 완수해낸 그의 끈기와 주도성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무 역량 또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석사과정 이후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공지능연구센터에 위촉 연구원으로 합류해 현재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좋은 동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속적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학습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연구에 적용해 왔습니다. 4년 전 학부 연구생 시절 첫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전처리로 어려움을 겪던 모습이 기억나지만, 석사 졸업을 앞둔 지금 그는 후배들에게 모델 서술 방법과 실험 자동화 기법을 가르칠 정도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성장 곡선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한준 연구원은 학문적 깊이, 실무 적용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 귀 조직에서도 빠르게 적응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조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저는 최한준 연구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오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3일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고상기

